

작품 전시로 활기찬 동문예술거리 만든다

전주시, 26일까지 우리동네 인물들 · 9월까지 우리가게 예술 수장고 운영

전주 동문예술거리 일원에서 전주시민 초상화와 한국화, 서양화, 판화 등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전주시는 오는 9월까지 ▲우리동네 인물들 ▲우리가게 예술 수장고 등 동문예술거리 활성화를 위한 작품 전시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주 동문예술거리 일원에서 전주시민 초상화와 한국화, 서양화, 판화 등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먼저 '우리동네 인물들'의 경우 이달 26일까지 오후 시간을 활용해 예술 창작공간 '동문길60'에서 전주시민 40명의 초상화 작품이 전시된다. 초상화의 주인공들은 각 동 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아 착한 임대운동과 착한 선결제 캠페인 등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이웃을 위해 온정을 베푼 시민들이 선정됐다. 김상덕, 손다운, 장우석 등 미술 분야 지역 예술가들은 전주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평범한 일상의 가치를 재확인하기 위한 취지에서 지난 3월부터

이들의 '생의 이력'이 담긴 얼굴을 그려왔다. 이어 동문예술거리의 가게와 빈 점

포에 예술 작품을 전시해 예술인들을 알리고 작품 판매의 기회를 제공하는 '우리가게 예술 수장고'가 이달 말부

터 9월까지 운영된다. 한국화, 서양화, 조형, 미디어, 판화 등의 작품들이 동문길과 은행로 일대 ▲한가네서점 ▲창작소극장 ▲동문창창 ▲스타커피 ▲소설 ▲정통유리샷수 ▲(주)금양 ▲대웅상회 ▲태양정육점 ▲헤레나플라워 등에 전시된다.

시는 이번 전시회에 예술인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찾아 동문예술거리가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이번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구성을 통해 동문예술거리가 문화예술과 젊음의 중심지로서 예전과 같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한옥마을 인근에 있는 동문거리라는 지난 2012년 예술거리 조성 사업을 통해 '동문예술거리'로 지정됐으며, 지역예술가와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발착형 문화예술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다. /김윤상 기자

“드라이브 스루로 명품전주복숭아 만나요”

전주농기센터, 20·21일 종합경기장서 직거래 행사 개최

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는 오는 20일과 21일 이틀간 전주종합경기장 주차장에서 '제23회 명품전주복숭아 직거래 행사'를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주복숭아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이번 직거래 행사는 코로나 19 여파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차를 타고 복숭아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열리게 됐다.

가격은 행사 당일 도매시장 경락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품질이 검증된 장태백봉, 마도카, 대옥계 등 주력품종들이 선을 보인다. 과중, 크기, 당도 등 규격에 맞게 엄선된 복숭아들이 1상자 당 3kg 기준으로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된다.

센터는 고품질 복숭아의 직거래 판매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충족시키고, 지역 복숭아 농가의 소득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센터는 지난해 7월 열린 직거래 행사에서 3300여 상자, 약 5900만 원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 센터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지열 활용 지중 냉·온풍 시설과 노동력·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화 장비, 수형개신 자재 등을 지원해 복숭아의 품질 향상과 안정적인 생산을 돕고 있다.

특히 극조생종, 극만생종 등 묘목 공급을 통한 우수품종의 다양화로 중생종 위주의 재배종도를 개선하는 등 생산 경쟁력 향상에 힘을 기울인다.

한편 전주지역에서는 삼전동, 중인동, 덕진동 등 247ha 면적에서 연간 4000톤가량의 복숭아를 생산하고 있다. 이는 전북지역 복숭아 생산량의 약 38% 수준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제5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직장을 구하는 청·장년층과 인력을 찾는 중소기업을 연결해주는 일자리 매칭 행사를 통해 20여 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다.

전주시는 15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취직이 어려워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장년층의 구직을 돕고, 적합한 인재를 찾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 제5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코웰패션(의류도소매 및 쇼핑몰 물류센터) ▲광주원테크(자동차 핸들 제조업체) ▲쑤푸드웨어(냉동 민두제조 제조업체) ▲쑤케이티에스푸드(돈육 가공업체) 등 4개 업체와 청·장년층 구직자 40여 명이 참여해 현장면접을 진행했다. 이날 면접을 통해 참여업체들은 20여 명의 구

직자를 채용기로 결정했다. 행사에 앞서 전주시 일자리지원센터 직업상담사는 구인·구직 매칭률을 높이기 위해 주력했다. 참여기업의 급여 및 근무시간, 통근버스 노선 등 구인조건에 맞춰 구직자 개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진행해 면접 대상자가 해당 업체의 면접을 볼 수 있도록 도왔다.

향후 시는 대규모 취업박람회보다 예산 대비 효율성이 높은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올 연말까지 4회 이상 더 개최해 청·장년층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는 전주시 일자리지원센터(063-281-2812)로 구인 신청을 하면 맞춤형 상담과 현장면접을 통해 인력 채용에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길고양이 급식소 40곳까지 늘린다

전주시가 길고양이의 부분별한 개체 수 증가를 막고 길고양이를 돌보는 캣맘과 주민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길고양이 급식소를 2배로 늘린다.

시는 올 연말까지 길고양이 관련 민원이 많고 캣맘과 주민과의 갈등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길고양이 급식소 20곳을 추가 설치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전주시청과 한옥마을 주차장, 전북대학교 등에서 길고양이 급식소 20곳을 운영 중으로, 이번 추가 설치로 40곳까지 늘어나게 됐다.

길고양이는 영역다툼과 울음소리로 인한 소음, 쓰레기봉투 훼손 등 각종 생활불편을 일으키고 있는 데다 차에 치어 죽는 개체 수도 증가하고, 길고양이를 돌보는 캣맘과 주민 사이의 갈등도 늘고 있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급식소 신

축 및 자원봉사자 접수를 받아 이르면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길고양이 급식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길고양이 급식소는 안정적인 위생적인 먹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중성화 수술을 통해 개체 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 내 캣맘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은 길고양이 급식소를 청결하게 관리하면서 길고양이에게 안정적인 위생적인 먹이를 제공해 동물복지에 강화하는 데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물병원, 캣맘 등 길고양이 보호단체 회원들은 급식소에 모이는 고양이를 포획해 중성화 수술을 실시함으로써 개체 수를 조절해 주민불편 최소화에 동참한다. 올해 6월말까지 길고양이 811마리에 대해 중성화수술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주거 위기가구에 임대주택 확대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내달부터 '희망플러스 순환형 임대주택' 5호 추가 운영... 26일부터 신청 받아 내부 사례회의 거쳐 지원

화재, 침수 등 자연재해와 강제퇴거 등 긴급한 사유로 거처를 잃은 시민들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센터장 오은주)는 다음 달부터 '희망플러스 순환형 임대주택' 5호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희망플러스 순환형 임대주택은 ▲자연재해, 강제퇴거 위기, 가정폭력 등 갑작스러운 주거지 상실 위기가구 ▲고시원, 쪽방, 여인숙 등 비주택 거주자 중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가구 ▲주거지재생, 재건축, 재개발사업 등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임시거처가 필요한 가구 등이 최대 6개월까지 보증금과 월 임대료 없이 관리비와 공공금만 내고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냉방고와 세탁기, 가스레인지 등 생활 필수자전을 모두 갖추고 있다.

지난해 8월 LH로부터 완산구 4호와 덕진구 6호 등 총 10호의 임대주택을 가동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위기가구의 증가로 이번엔 5호를 추가해 총 15호를 운영하게 됐다.

추가된 임대주택에는 청이람한방병원, 삼양화성 노동조합, 주식회사 전주

페이퍼, NH전북농협 지역사회공헌단, 한국수자원공사 노동조합, 법률사무소 좋은, 세플러코리아 전주공장, 김용현 회계사, 가온공간정보, 한국노총 전북본부 노동연합 봉사단, 전주연탄은행 등이 생활 필수자전을 후원했다.

센터는 오는 26일부터 임대주택 입주 신청을 받아 내부 사례회의를 거쳐 입주를 지원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주거복지센터(063-281-0163)로 문의하면 된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희망플러스 순환형 임대주택 운영을 시작한 센터는 현재까지 24가구 38명의 입주를 지원했으며,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및 다양한 주거상담 서비스를 통해 긴급한 주거상실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왔다.

오은주 센터장은 "지난해 여름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로 긴급히 주거공간이 필요한 위기 가구에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등 희망플러스 순환형 임대주택이 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거주지 상실 등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의 주거상황을 위한 점검다리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